

다시 푸는 경서

법구경

진구품(塵垢品) ②

人如聚是 인여각시
不當念惡 부당념악
惡近非法 우근비법
久自燒沒 구자소멸

사람들이 이런 줄을 알겠거든
마땅히 나쁜 생각 품지 않아야 한다
어리석은 이는 법 아닌 것을 가까이

若信布施 약신보시
欲揚名譽 욕양명예
會人虛飾 회인허식
非入淨道 비입정경

만일 믿음으로 보시한다면서
제 명예나 드날리려 하거나
사람들의 허식에 맞추려 한다면
이는 깨끗한 마음자리에 드는게 아

一切斷欲 일체단욕
截意根原 절의근원

어리석은 이는 법아닌 것 가까이해
오래도록 제 자신을 불태워 버린다

晝夜守一 주야수일
必入定意 필입정의

일체의 욕심을 끊고
번뇌심의 뿌리를 잘라내어
밤 낮으로 근본자리 지키면
반드시 선정경계에 들어가리라

善垢爲塵 착구위진
從染難離 종염진루
不染不行 불염불행
淨而難離 정이이우

세속의 때에 집착하면 망념이 되고
그것 따라 물결면 번뇌라 한다
물들지 않고 따라 행하지 않으면
마음 깨끗해져 어리석음 여운다

見彼自慢 견피자침
常內自省 상내자성
行漏自欺 행루자기
漏盡無悔 루진무구

번뇌가 스스로 침범함을 바로보고
항상 안으로 불 밝혀
번뇌가 스스로를 속이는 것 살펴면
번뇌 더하여 때없이 맑아진다

火莫熱於姪 화막열어음
捷莫疾於怒 첨막질어노
網莫密於疑 망막밀어지
愛流駛乎河 애류사호하

음욕보다 더 뜨거운 불이 없고
분노보다 더 민첩한 것 없으며
어리석음 보다 더 용근 그물 없고
갈애의 흐름은 저 강보다 빠르다

虛空無礙迹 허공무찰적
沙門無外意 사문무외의
衆人盡樂惡 중인진락악
唯佛淨無穢 유불정무세

허공에는 아무런 자취가 없고
사문에게는 경계에 탄 뜻 없다
못 사람들 나쁜일 싹짓 즐기지만
부처자리 만은 깨끗해 더러움없네

虛空無礙迹 허공무찰적
沙門無外意 사문무외의
世間皆無常 세간개무상
佛無我所有 불무아소유

허공에는 아무런 자취가 없고
사문에게엔 경계에 탄 뜻 없네

세간에선 모든게 덧없지만
부처자리엔 내것이랄 할 게 없네

봉지품(奉持品) ①

好樂道者 호경도자
不競於利 불경어리
有利無利 유리무리
無欲不惑 무욕불혹

바른 도를 좋아하는 이
이익 앞에서 다치지 않는다
이롭거나 이롭지 않거나 간에
욕심없고 미혹하지 않는다

常樂好學 상민호화
正心以行 정심이행
摧懷實慧 융회실혜
是謂眞道 사위외도

어긋날까 늘 걱정해 배우기를 좋아
하고
마음을 바꾸어 그대로 행하며
실다운 지혜를 품고 지키는 것
이를 일러 도를 행하는 이라 龍眼

1965년에 밀양 표충사에서 살 때의 일

정 무스님 (영월암 주지)

'나' 라고 하는 중심 없는
거짓 형상에 얽매여 사니
개인도 나라도 흔들거려요

거품을 뺀다는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
다. 그간 우리의 생활에는 참으로 많은
거품이 끼어 있었던 것입니다. 거품이란
허황된 것입니다. 속도 없이 부풀어 올라
실제인양 행세하는 것이 바로 거품이지
만 사실은 그 실제조차 없는 거짓 형상
입니다. 우리 중생의 삶에 거품이 많이
끼었다는 것은 불성(佛性)을 망각하고
번뇌와 망상에 사로 잡혀 살아 왔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경제의 거품을 빼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신의 거품, 마음의 거품을 걷어내
는 일입니다. 오늘날의 여러 고통은 어디
서 왔는가. 바로 거품처럼 부글부글 끓어
오르는 욕망과 허세에서 온 것입니다. 욕
망과 허세가 끓어 오르는 삶은 가식의
삶이어서 조그마한 일만 만나도 온통 우
왕좌왕하며 정신을 못차리게 됩니다. 자
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 라고 하는 중
심은 없고 거품과 같은 허세만 들어왔기
에 작게 당할 어려움도 크게 당하고 얼
른 가다듬을 수 있는 일도 점점 화근을
키워 결국 주저앉아 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 난국을 빌어 우리는 허세 부리지 않
는 삶, 진실(眞心)으로 사는 삶의 자세를
배워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늘 진
심이란 말을 사용하지만 무엇이 진실로
는 사는 것인지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참 마음이 진실입니다. 참 마음은 무엇
이나, 바로 부처의 마음입니다. 일체중생
이 다 불성을 갖추었다고 했으니 우리가
 가진 부처의 마음, 곧 분별하지 않고 차
별하지 않고 치우치지 않고 미혹에 떨어
지지 않아서 언제나 바르고 밝은 마음이
 곧 진실인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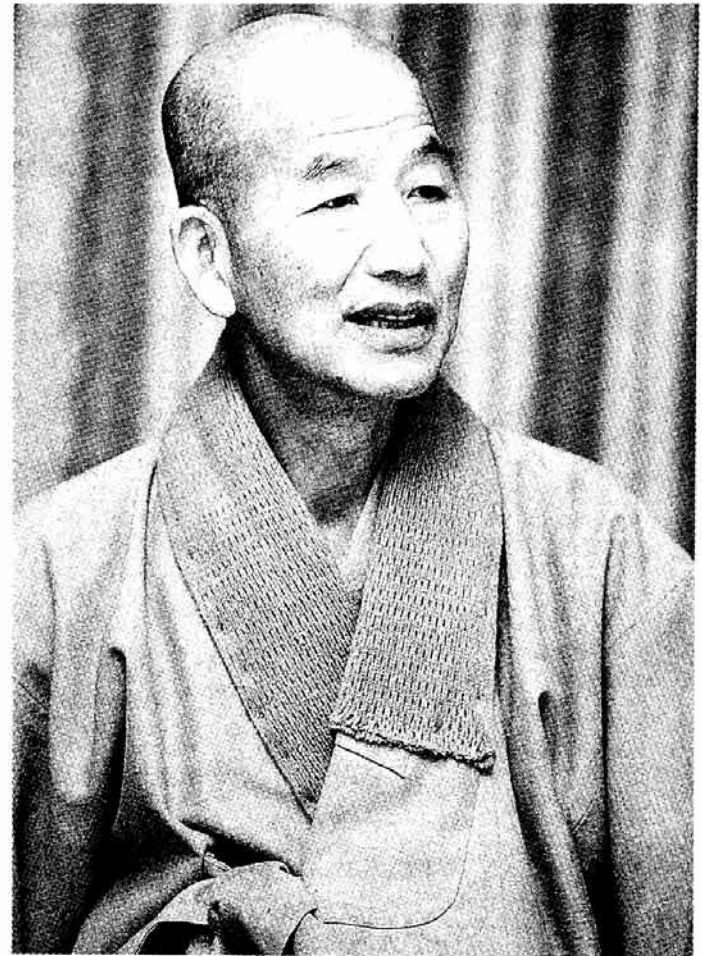
진심을 잃어 버리고 허망한 욕심을 따
르다 보면 좋은 결과는 맺어지지 못합니
다. 버기 못자리면 키는 무성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외적으로만 커 나가다가
는 내실을 갖추지 못하는 것입니다. 알맞
게 자라야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안과 밖이 골고루 조화를 이루며
자라야 억겁대생의 복을 키울 수 있습니
다. 진실으로 사는데서 안과 밖이 조화로
이 자라는 것임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1965년에 밀양 표충사에서 살 때의 일

입니다. 표충사에는 사명대사의 유물들이
있는데 나는 그곳에서 사명대사의 목관
본 문집들이 정리되지 못한채 산적이 된
것을 보고 그것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문집의 목판본은 크게 세가지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분충서란록'과 '사명집' 그
리고 '제영록'이 그것인데 보관상태가
좋지 못했습니다. 더러 유실된 판본도 많
다는 이야기를 듣고 목판들을 차근차근
열람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
다. 판본의 내용을 열람해 보니 판본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서 산적이 된 것처

- 1931년 군산 생
전북대 졸업
58년 전강스님 은사로 봉은사서
도도
직지사 강원 졸업
영은사사 탄허스님에게 대교과
수료
71~82년 용주사 주지
83년 신흥사 주지



"분별하지 않고 치우치지 않고
미혹에 떨어지지 않아
언제나 밝은 마음이 眞心"

럼 보였을뿐 내용상 세권의 문집이 완벽
하게 보관돼 있었던 것입니다. 더러 탈자
가 된 것이 있어 순서가 흐트러져 있었
던 것입니다. 여름내내 판본들을 내용에
따라 맞추고 손상된 판본을 보강했다니
사명대사의 문집이 고스란히 살아있습니
다. 참으로 보람된 작업이었습니다. 판본
을 정리해 인쇄를 한후 각 대학과 사찰
에 보냈더니 다들 "참 훌륭한 일을 했다"
고 말하던군요. 나는 그때 온 마음을 바
쳐서 일을 하던 안되는 것이 없다는 것
을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3년후에 나는 경북 영주에 가
게 되었습니다. 범어사를 가기 위해 중앙

선 열차를 타고 가다가 영주에 내리게
된 것입니다. 허물없이 드나들던 안락국
(安樂局)에 들렀습니다. 당시 영주의 안
락국은 유명했습니다. 지나가는 객스님들
이 그 약국을 객사로 이용했던 겁니다.
약사 부부의 장한 신심으로 약국이 잘질
같이 되어 버린 겁니다. 영주 안락국과
대구 대남한의원, 경주의 대자한의원
스님들에게 소문이 난 곳이었습니다. 스
님들에게 치료를 잘해주는 것은 물론 스
님들을 공양하는데 지극했으니까요. 대자
한의원은 고아원과 다름 없을 정도로 길
에서 헐벗고 굶주린 아이들을 데려다 돌
보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안락국에 갔는데 주인이 "신심
이 멀어져서 개종을 하든가 어찌해야했
다"며 머리를 잘라질래 흔들었습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니 그렇만도 하더군요. 영
주포교당 때문이었습니다. 시내에 위치한
이 포교당은 한달에 한번씩 주지가 바뀌
면서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포교당의 운영권을 두고 비구와 대치의
실경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조
계종측 주지가 들어가면 다른쪽 신도들
이 함대를 하고 애를 먹다가다 여비를
취서 다른 곳으로 보내버리기를 거듭하
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며 안락국의 주인이 마
음이 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을 겁니
다. 그래서 나는 물어봤습니다. "그럼 지
금은 누가 주지를 맡고 있느냐"고. 그랬
더니 "지금은 스님이 없는 상태"라는 것
이었습니다. 나는 '이것도 나의 인연이구
나' 싶어서 범어사 가는 것을 포기하고
영주포교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장작개비
를 마련해 포교당에 들어가니 가운데는

책방 여시아문 2월 특선 - 경전의 지혜로 겨울나기

책방 여시아문 통신판매 안내
책방 여시아문 주소: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02)737-0695, 732-1521 / 팩스: (02)737-0696

책방 여시아문에서는 올 2월, 많은 불자들
에게 널리 읽히고 있는 경전들만을 간추려
특판전을 열고자 합니다.
금강경, 반야심경, 법구경 등 불자들이라면
누구라도 한번쯤 읽어 보아야 할 경전들을
한 자리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매서운 날씨만큼이나 꽁꽁 얼어 붙은 우리
들의 마음을 뚫는 지혜를 빌어 이겨 가시
지 않겠습니까.
문의 전화: (02)737-0695, 732-1521

- 금강경 강의 무비 / 불광 / 5500
금강경 대강좌 청담 / 보성문화사 / 20000
금강경 대강좌 이계열 / 여시아문 / 8000
금강경 오가해 무비 / 불광 / 15000
금강경 이야기 범문 / 정토 / 상 9500 하 6200
금강반야바라밀경 월운 / 보림각 / 5000
금강반야바라밀경 해안 / 불서보급사 / 4500
능엄경 불전간행회, 김두재 / 민속사 / 9500
능엄경 강화 1, 2, 3 동국역경원 / 24500원
능엄경 주해 윤해 / 동국역경원 / 10000
대승입능가경 김재근 / 명문당 / 7000
묘법연화경 고산 / 반야심 / 15000
반야심경 범성 / 큰수레 / 8000
반야심경 송원 / 상아 / 6000
반야심경 이기영 / 한국불교연구원 / 4000
반야심경 청담 / 보성문화사 / 9000
반야심경 강의 한정섭 / 불교대학교 교재(권) / 6000
반야심경 이야기 범문 / 정토 / 7000

- 법구경 김달진 / 현암사 / 8000
법구경 불전간행회, 석지현 / 민속사 / 6500
법구경의 세계 이원섭 / 운주사 / 7000
법화경 윤해 / 동국역경원 / 7000
법화경 이원섭 / 삼중당 / 6000
보현행원품 한정섭 / 불교통교교육원 / 6000
보현행원품 강의 광덕 / 불광 / 4000
보현행원품 강의 무비 / 민속사 / 6500
아함경 대한불교조계종교육원 / 대한불교조계종 / 12000
아함경1, 2 불전간행회, 돈연 / 민속사 / 각 7500, 7000
여래심지의 요문(대승입능가경)
박진주 / 능가산방 / 11000
원각경 감산대사, 오진탁 / 세계사 / 15000
원각경 관심석 범성 / 큰수레 / 9000
원각경 주해 월운 / 동국역경원 / 3000
유마경 불전간행회, 박용길 / 민속사 / 6500
유마경 안진호 / 범문사 / 25000
유마경 강순용 / 시공사 / 12000

- 유마철소설경 이기영 / 한국불교연구원 / 8000
육조단경 광덕(역) / 불광 / 12000
육조단경 나카가와 다카, 양기봉(역) / 김영사 / 7000
육조단경 실재열 / 보림각 / 15000
육조법보단경 해의 범성 / 큰수레 / 12000
천수경 무비 / 불일 / 4500
천수경 강해 범성 / 큰수레 / 6000
천수경 이야기 김호성 / 민속사 / 4500
초발심지경문 실재열 / 보성문화사 / 7000
초발심지경문 반해 / 불서보급사 / 3500
치문경준 이일영 / 보림각 / 15000
치문경준 이일영 / 수덕사승가대학 / 15000
한글 세대를 위한 법화경 상, 하
감산대사, 오진탁 / 세계사 / 각 15000
한글 세대를 위한 법구경
최동호, 김달진 / 세계사 / 12000
한글 아함경 고익진 / 동국대학교 출판부 / 12000
화엄경 범성 / 동국역경원 / 7000

- 화엄경 불전간행회, 김지현 / 민속사 / 12000
화엄경 강의 무비 / 불광 / 9000
성철 스님 법어집
백일 법문 상·하 상 6500원 하 5500원
선문정로 평석 6000원
돈오입도 오문론 강설 5000원
신심명 중도가 강설 6000원
영원한 자유 6000원
자기를 바로 봅시다 6000원
돈황본 육조단경 6000원
선문정로 4000원
본지풍광 7000원
한국불교의 법맥 5500원
*성철 스님 법어집 1권(11권 ₩63,500)을
구입하시는 분들에게는 비디오(스님, 성철
스님, ₩100,000)를 선물로 드립니다.

